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(안)』

≪ 檢 討 報 告 書 ≫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(안)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사유는

○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8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

○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을 취득하려면 우리 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

□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은

○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88번지의 1에 소재하는 면적 896.2㎡(271평)의 토지와 연면적 836.8㎡(253평)의 지하1층, 지상 3층의 건물 1동을 매입하여

○ 지하1층, 지상3층 연면적 1,612㎡(487평)의 건물을 신축하여 가칭 "양평정보문화센타"를 건립한 후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.

□ 검토의견

○ 사업추진의 법적근거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의 설립·육성의무와 도서관, 문고 등 독서진흥을 위한 시설·설비의 확충의무에 있습니다.

○ 우리구의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당산동 121의 22 남부교육청내의 915석 규모의 도서관 1개소가 있을 뿐입니다. 우리구 관내 교육시설이 유치원 42개원, 초등학교 21개교, 중학교 11개교, 고등학교 7개교 등 총 81개 시설이 있고 총 60,091명의 학생이 있음을 감안할 때 도서관 시설의 확충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대상부지의 실태를 조사한 바 동 부지는 2004년도에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양평동 거성아파트 주민 등의 집단민원으로 건축허가 취하후 2005년 1월에 토지주가 우리구에 대지의 무상사용을 승낙하여 현재 대지는 교통지도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은 공가로 폐쇄 조치되어 있습니다.

○ 주변의 여건은 170m 이내의 근접지역에 3개 아파트 단지 1,831세대가 있고, 양화중학교·양평중학교·선유고등학교가 있으며, 롯데제과와 강서세무서 등이 있어 도서관 부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.

○ 소요예산은 국비 6억 8,240만원, 시비 32억 2천만원, 구비 18억 3,198만원 계 57억 3,438만원이 2007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, 시비보조금 32억 2천만원중 25억은 2005. 4. 11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부지매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.

○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지 692㎡, 지하1층, 지상4층 1,696㎡로 본 계획안과 규모가 비슷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타의 경우를 살펴본 바,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, 년간 수입은 약 1,200만원, 년간 지출은 약 3억 5천 2백만원이며 이용인원수는 년간 155,046명(1일 평균 440여명) 이었습니다.

□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5. 5. 6

보 고 자 : 김 찬 재